부산 천등회 문화유적 탐방기

최 참판 댁 – 토지 문학비

하동 코스모스 축제

부산종친회 산하 천등회(회장 권영훈)는 지난 10월 10일 하동 일원에 대한 가을 문화유적 탐방에 나섰다. 해마다 해 오던 선적지나 문화유적 탐방을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5년 만에 재개하여 무척 뜻 깊고 새삼스럽다. 회원 30여 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 일원으로 구경 갈 참이다.

남해 고속도로를 두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하동 북천은 코스모스축제 기간이 끝나 주변은 한산한데 코스모스는 한창이다. 맑은 하늘 아래 하늘대는 꽃들이 가냘프고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긴다. 때늦게 찾아온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어울려 예쁜 풍경을 골라 카메라에 담았다.

모처럼 다시 와 보니 종전과 달라진 점이 눈에 뜨인다. 백일홍과 맨드라미 같은 다른 꽃들이 많이 늘어나 코스모스 축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꽃 축제로 바꾸어도 이상할 게 없겠다. 또, 새로 생겨난 꽃밭 입장료에 쇠로 된 울타리가 꽃밭을 옥죄고 섰고, 철길 따라 줄지어 선 코스모스는 축제 몸살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다. 역시 축제는 기간 중에 보아야 제대로 보겠구나 싶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시장기가 느껴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차를 재촉하여 나루터 같은 강가에 자리 한 음식점을 찾는다. 하동 명물인 재첩 국밥과 재첩 무침으로 허기를 채우고 불그레한 오미자 막걸리로 건배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운다. 식후, 계획대로 시대극 "토지" 세트장인 평사리 최 참판 댁을 찾아간다. 박경리 선생의 인생 작인 "토지"의 주인공 '길상'과 종친회 '길상' 고문의 이름을 두고 설왕설래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마침 사극 촬영이 있어 관람이 일부 제한되는 관계로 무료입장이란다. 물론 경로우대도 어차피 무료이지만. 몇 차례 방문으로 익숙하여 한 바퀴 휙 돌아보며 풍경 좋은 몇 장면을 골라 사진에 담았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온 들판이 한눈에 들어와 마치 소설 속 풍경이 실제인 양 느껴지도록 한 세트장의 자리 배치는 보면 볼수록 절묘하여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름난 하동 대봉 홍시로 메마른 목을 축이고 나니 따갑던 가을볕도 한풀 꺾여 보인다.

다음 행선지로 정한 하동의 새 명물 케이블카는 하필 점검 날이라 멈추어 섰고, 쌍계사는 모두 식상하다는 말에 버스는 구례 사성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섬진강을 건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아름다운 길 100선' 중 28번째 '섬진강 벚꽃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와 구례 문척면 오산(鼇山)에 도착하니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한 시골 풍경 그대로다. 주차장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꼬불꼬불 사성암에 오른다. 의상, 원효 대사와 도선, 진각 국사 등 네 고승이 수도한 곳이라 하여 사성암(四聖庵)이라 이름표를 달았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이백 미터 쯤 올라가자 깎아지른 절벽에 매달린 건물이 나타난다. 보는 순간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절벽과 건물이 어울려 이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높다란 암벽을 휘감고 오른 담쟁이덩굴이 때맞추어 빨갛게 물들어 아름다움에 신비로움까지 더한다. 이곳이 바로 원효 대사가 손톱으로 그렸다는 마애여래입상을 보전한 약사전이다. 다른 건축물도 돌덤(절벽)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서 바위와 절묘하게 어울린 풍치를 뽐낸다. 명승 제111호가 결코 헛된 이름이 아니다.

관람을 끝내고 내려와 준비한 돈육과 술로 배를 채우고 보니 어느덧 다섯 시다. 귀로를 재촉하며 찻간에 올라 정담으로 우애를 다지며 세 시간 반을 달려온 끝에 유쾌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는 서서히 막을 내린다. 행사를 마련한 천등회 회장님과 집행부, 참석해 주신 원로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

수필가 권채영

권혜숙 살즈만 교수 한글날 대통령 표창 수상

권혜숙(70세) 살즈만 교수가 2023년 10월 9일 세종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한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미국 서던 네바다 대학교(College of Southern Nevada, CSN) 한국어 과정을 맡고 있는 권혜숙 살즈만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1972년 2월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17회), 1977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1982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미국에 사는 권혜숙 살즈만 교수가 2023년 한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은 여고 시절 스승 허만길 문학박사(시인. 한글학회 회원. 전 교육부 국어과 편수관)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정부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권혜숙 살즈만 교수는 1992년 9월 네바다 주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서던 네바다 대학교 세계 언어학과에서 근무하면서, 1996년 여름, 세계 언어학과에 한국어 과정을 설치해 줄 것을 대학교에 건의하여 1997년 1월에 시작되는 봄학기에 처음으로 한국어 과정이 개강하게 되었다. 아울러 권혜숙 살즈만 교수는 1997년 1월 20일 서던 네바다 대학교 한국어 과정 강사로 임용되었다.

살즈만 교수는 그의 스승 허만길 교사가 1968년부터 전국적으로 우리말 사랑 운동을 벌일 때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서던 네바다 대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설치되는데 공헌하였고, 2023년 10월까지 26년 9개월 동안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및 한국 문화의 해외 소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살즈만 교수는 1986년 미국의 2년제 대학교인 서던 네바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5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 12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국화 교장, 하얼빈시동력조선족소학교 개교 60돌 기념행사 성대히 개최

중국 하얼빈시 동력(動力)조선족소학교(교장 권국화)에서는 개교 60돌을 맞이하여 2023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교육 종사 관련 인사와 수많은 내빈을 비롯하여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1963년에 개교 이래 초기 10명 교사와 165명의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100여명의 교사와 700여 명의 학생에 달하는 민족특색학교로 발돋음했다. 그동안 교직원과 학생들은 60돌 경축행사를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눈코뜰새없이' 바쁘게 준비했다. 권국화 교장은 축사에서 60성상의 역사를 감명 깊게 되돌아보면서 학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준 모든 교직원들과 학교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시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족특색이 있고 교육질이 우수한 일류의 현대화 시범화 명브랜드학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2부 행사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소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하모니카로 연주한 아리랑 가곡은 참가자들의 심정을 울려주었으며 흥겨운 아리랑 연주에 따라 진행한 학생들의 농악무는 우수한 민족전통을 이어가는데 희망을 갖게 하였다.

권오덕 중국 청도종친회장

동정

▲ **권오남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가 2022년 4월 아시아 최초로 스톡홀름대학의 '스벤드 페데르센 교육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창의 기반 학습법과 확산적 사고를 통한 수학학습 등 수학교수법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권 교수는 2003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학교육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수학교육연구(ESM·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편집위원이고, 국제 학술지 수학교육학연구(JRME·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의 국제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권 교수의 부친은 권영복 대종회 고문이다.

▲ **권대웅 교수**가 지난 3월에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조교수로 부임했다. 권대웅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으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부터 10여년 간 삼성반도체,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미국 UC Berkeley EECS (semiconductor device Lab.)에서 박사후연구과정(포스트닥Post doc)을 거쳐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2019-2023)로 재직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산업용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실리콘 기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물질을 활용하여 차세대 로직,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및 센서 소자 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권대웅 교수의 부친은 권영기 검교공파종회 서울 총무이다.

▲ **권영명(66세)**씨가 영천시 2023년 제3호 농업명장에 선정됐다. 권영명씨는 주아마늘 종자를 인근 농가에 공급해 연작 피해 병충해를 방제하는 등 40여 년간 마늘 농사로 습득한 마늘 생산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고품질 마늘 생산기술 보급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신녕면 완전2리 이장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수한 영농기술을 이웃들과 공유하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권영명씨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농업명장에까지 뽑혀 감개무량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이장이기도 한 그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영농기술을 이웃들과 공유하는가 하면 마늘 수확 시 톤백 자루를 활용해 작업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 **권오을 전 국회의원(대종회 부회장)**은

10월 18일 포항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부회장은 금년 들어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등에서도 동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향후 전국을 돌며 같은 주제로 특강을 할 계획이다. 권 부회장은 자치단체 공직자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개인의 능력 배양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권재현 올림플래닛 대표**가 9월 19일

2023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올림플래닛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신규 임직원 대상 메타버스 직무교육, 대학원 학자금 지원, 양육 수당 지원,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임직원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호칭을 파괴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해 유연한 조직문화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권정택 중앙대병원 원장(신경외과)**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신임 권정택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뇌신경센터 실장, 진료부장을 거쳐 23대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대한두개저학회와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권 이사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귀한 결심을 한 기증자 유가족이 영웅으로 기억되도록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2023년도(權紀 1094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족친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 알　림 : 능동재사 해체 및 보수공사로 인해 제수 준비 등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 추향제를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영창